



# 희망의 봄날

김영식

1

관장덕에 아지랑이를 피우며 찾아온 따스한 봄은 두 소녀의 기분을 봉 뜨게 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가에서 지중지중 노래하던 한쌍의 종달새도 반갑다 인사하듯 두 소녀의 머리우를 즐겁게 날아옵니다.

《히야, 고것!》하며 몸이 호리호리한 소녀애가 종달새를 향해 손을 막 휘젓는데 또 다른 감탄이 옆에서 터져나옵니다.

《금실아, 이것 봐. 벌써 진달래가 폈어.》

그 소리에 금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성이가 가리켜보이는 진달래나무에 꽃잎을 활짝 펼친 분홍빛꽃송이들이 다문다문 곱게 피어있었습니다.

《야! 정말. 언제 망울을 터쳤을까?》

금실이도 희한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그는 놀라며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혜성아, 다치지 말아.》

혜성이가 진달래가지를 꺾을 차빈듯 손을 가져가고있었던것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금실이를 돌아보는 그 애의 작은 실눈이 단박에 밤알만큼 커졌습니다.

《너 갑자기 웬 큰소리니? 심장떨어지겠다야.》

혜성이의 엄살에 금실이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어른들처럼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은 자기 심장이 떨어지는건 무섭고

금방 피어난 꽃송이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건 무섭지 않나? 음, 보천보에 사는 학생같지 않구만.》

눈을 똑 부릅뜨고 어른의 흉내를 내는 금실이를 보며 혜성이는 픽- 웃었습니다.

그러나 얼른 웃음기를 가무리며 흥이 나서 맛받아 화답했습니다.

《암, 우리 보천보에 그런 학생이 있어서야 안되지.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야.》

두 애는 그만에야 배를 그러안고 깔깔거렸습니다.

《호호...》

《호호...》

웃음끝에 혜성이가 진심을 터놓았습니다.

《실은 너희 언니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고싶어 그랬던거야. 하난 생각하면서 둘은 생각할줄 몰랐거든. 내가 잘못했어.》

금실이는 친구의 마음에 코허리가 찡해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보천보를 사랑하는 언니입니다. 언제나 학과실력에서 1등이라고 학교속보판에 큼직하게 나붙곤 하는 언니를 두고 마을에서도 고향의 자랑이라고 칭찬들이 자자합니다.

《금실아, 너희 언닌 인차 대학생이 되겠구나.》

《대학생?...》

《응, 학교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너희 언니가 대학생이 된다는건 응당한것이 아니겠니.》

《하긴 그래. 우리 언닌 정말 못하는게 없

어. 노래면 노래, 시랑송이면 시랑송!... 우리 언니 희망은 또 얼마나 큰지 아니?)

《언니 희망이 뭔데?》

금실이는 한손으로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그건... 아직 비밀이야.》

《뭘, 비밀?》

혜성이는 버릇처럼 눈을 크게 뜨며 서운함을 한입 빼물었습니다.

《나한테도 말 못할거니?》

금실이는 웃음을 머금고 볼부은 혜성이의 손을 다정히 잡았습니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어쨌든 대학보다 더 좋고 중요한데야. 그쯤 말해주면 알만 하지?》

금실이는 혜성이가 더 물을세라 얼른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젠 그만하고 어서 내려가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서 조약돌을 깔아야지. 그런데 혜성아, 조약돌이 모자라지 않겠니?》

《흥, 네 대답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조약돌은 이거면 충분해.》

혜성이는 조약돌이 든 구력을 내려다보며 투덜대듯 말했습니다.

《아마 금옥언니도 우리가 이 조약돌을 가지러 10리길을 갔다온걸 알면 깜짝 놀랄거야.》

《호호... 그러니 이번엔 우리가 언니를 앞선셈이 됐구나.》

금실이는 흥이 나서 말하며 얼른 구력을 들었습니다.

혜성이도 재빨리 구력을 맞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건 두고봐야 알아. 우리가 언제한번 고향을 꾸리는 일에서 너희 언니를 앞서본 적 있지?》

그 말은 조잘대며 흐르는 시내물처럼 금실이의 마음에 찰랑찰랑 흘러들며 언니에 대한 자랑과 긍지로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

봄기운을 가득 싣고 가림천은 유유히 흐르고있었습니다.

허리에 두손을 얹으신 대원수님께서서는 추억깊은 시선으로 가림천을 굽어보시었습니다.

《벌써 20여년세월이 흘렀구만.》

그러시고는 가림천가를 천천히 거니셨습니다.

대원수님의 뒤를 따르던 항일투사아저씨들도 그날의 광경을 그려보는듯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습니다.

왕별을 단 한 투사아저씨가 한걸음 나서며 정중히 말씀올렸습니다.

《수령님, 그날의 불길이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것 같습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빛쫘 쪼르르, 힐끔힐끔, 비잇비잇...

못새들도 그날의 감격을 전하는듯 가림천물결우를 날아예며 노래불렀습니다.

낮익은 황철나무로 향하시던 대원수님께서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이, 얼핏 보기에 중학교(당시) 2학년생쯤 됐음직한 두 소녀애가 바로 그 황철나무아래에 나란히 앉아 무엇인가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있었습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두 소녀쪽에 정찬 시선을 보내시었습니다.

《금실아, 너희 언니가 이걸 보면 아마 깜짝 놀랄거야. 언니가 대학에 가면... 우리가 전적지를 다 말자.》

《가긴 어디 간다고 그러니.》

《그럼 안 간다는거야?》

《그쯤 알아두라고 하지 않았니. 이전 우리 가정 비밀이란 말이야.》

《넌 아까부터 그저 비밀, 비밀. 그래가지고도 뭐 딱친구라구...》

성이 난듯 얼굴이 파리해진 처녀애가 금실이라는 아이에게 퉁을 놓았습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허리를 굽히시고 그 애들 어깨너머로 반질반질 윤기도는 조약돌들을 바라보시었습니다.

《오, 너희들 좋은 일을 하고있구나.》

갑자기 뒤에서 울리는 우렁우렁하진 음성에 두 애는 어리둥절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순간 두 애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원수님!》

두 소녀는 기쁨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인사말도 변변히 올리지 못한채 대원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력사의 자취가 어린 황철나무도 쇠쇠 소리를 내며 설레었습니다.

금실이와 혜성이는 대원수님의 량옆에 붙을 기대고 섰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행복으로 하여 두 소녀는 뒤에 선 투사들속에 금실이 아버지가 있는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며 학교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알아보신 대원수님께서서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쯤하면 키도 크고 몸도 실하다 하며 무척 기뻐하시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으신 대원수님께서서는 곧 황철나무밑에 가지런히 깔려있는 하얀 조약돌에 시선을 멈추시었습니다.

《조약돌들이 참 곱구나. 그래 이 조약돌은 어디서 난거냐?》

혜성이가 자랑기를 한껏 담아 얼른 대답을 올리었습니다.

《가림천웃목에 가서 주어왔습니다.》

《가림천웃목이라면 여기서 퍼그나 멀겠는데... 그래, 이 좋은 일을 누가 생각해냈느냐?》

대원수님께서서는 짐짓 놀라신 어조로 물으시었습니다.

《금실의 언니가 생각해냈습니다.》

혜성의 말에 금실이는 황급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 그런게 아니구...》

금실이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괜히 혜성에게 눈만 흘렸습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그 모양이 재미있으신듯 두 소녀의 어깨를 다정히 그러안으시더니 금실에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그 말씀에 금실이 아버지가 송구한 몸가짐으로 나서며 대답을 올렸습니다.

《수령님, 실은 그 애가 저의 둘째딸입니다. 아직 철이 없어나니...》

《관장동무의 딸이란 말이지. 그러고보니 정말 아버지를 닮았소. 이름이 금실이라고

했지?》

《예.》

《관장동무가 딸뿐아니라 보천보에 사는 아이들의 교양도 잘했어. 역시 보천보분관장이 다르구만.》

대원수님의 믿음에 어린 말씀에 금실이 아버지는 몸둘바를 몰라했습니다.

금실이의 어린 마음에 행복의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 왜놈들에게 다리까지 다친 아버지였지만 20여년전 어린 나이에 보천보의 밤하늘가에 타오르던 불길을 심장에 새겨안고 해방후에도,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지금까지 보천보를 지켜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 보천보분관(당시) 관장으로 사업하면서부터 불편한 다리로 보천보를 혁명전적지로 꾸리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온 아버지는 보천보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실이는 봄바람에 살랑대는 황철나무잎새들의 설레임소리를 들으며 어깨우에 놓인 대원수님의 손에 붙을 꼭 가져다대었습니다.

《수령님, 사실은 제가 교양한것이 아닙니다. 두해전 백두산을 비롯한 여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던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이 보



천보를 다녀간 후부터 여기 아이들은 자기 고장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전적지고장에서 사는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실이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날의 북받쳐 오르던 감격이 그득히 어려있었습니다.

금실이의 고운 눈도 반짝 빛을 뿌렸습니다.

그날은 두해전 어느날 새벽이었습니다.

언니의 손목에 이끌려 비자루를 들고 마을 한가운데 정중히 모셔져있는 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가던 금실이와 그의 언니는 놀라운 광경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안개속에 대원수님의 동상주변에서 서성거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안겨왔던것입니다. 문득 전날 저녁 아버지가 평양에 있는 제1중학교 학생들이 답사대를 못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에 여기 보천보에 들렀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른새벽 대원수님의 동상주변에 대한 관리사업까지 할줄은 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놀라움에 찬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던 금실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 고와!》

금실이의 탄성소리를 들었는지 조약돌을 한알한알 정히 깔아가던 한 학생이 일어서더니 그들에게로 다가오는것이었습니다.

순간 주위가 환해지는것 같았습니다.

영채도는 눈빛이 금실이의 작은 가슴속에 따뜻한 봄빛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보천보학생들을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다정히 울리던 그 음성,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여기 보천보의 학생들답게 고향마을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쟁쟁하게 울려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장오빠는 금실이 언니에게 〈보물수첩〉도 주었습니다.》

자랑기가 한껏 어린 혜성이가 씩씩하게 말씀을 올리자 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미소를 보내시었습니다.

《〈보물수첩〉이란 말이지? 그래 그 수첩에 무슨 보물이 있더냐?》

대원수님의 물으심에 이번 차례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버르고있던 금실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백두산〉 시와 혁명가요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거 참 진짜 보물이로구나.》

《예, 우등불모임을 할 때 언니가 〈백두산〉 시를 읊으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리 학교학생들뿐아니라 이웃군에서도 여기 답사를 왔다가는 언니의 시랑송을 듣고 갑니다.》

《허허,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게로구나?》

이때 기다렸다는듯 혜성이가 얼른 나섰습니다.

《굉장히 많이 읊니다.》

《그렇습니다.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의 답사대가 왔다간 다음부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와서는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답을 못해주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대원수님께서는 의미있는 미소를 지으시고 두 소녀들을 보시며 환히 웃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저 멀리 봄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하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시었습니다.

두해전 학교동무들과 함께 백두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마치고 자신께 오시었던 어리신 아드님의 모습이 삼삼히 떠오르시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이번 답사길에 보천보에 들려 우등불모임을 가졌는데 대원수님께서 항일의 그날에 보천보에 지펴올리셨던 그 불길을 보는것 같았다고 감동깊은 어조로 말씀드리었습니다.

그때 대원수님께서는 어리신 아드님이 기특하시여 어깨를 두드려주시었던것입니다.

### 3

《아니, 언니가... 원수님, 저기에 우리 언니가 읊니다.》

금실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짱충짱충 달려나갔습니다. 금실의 언니인 금옥이는 황철나무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속에서 불쑥

달려나오는 동생을 보고 영문을 알수 없�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총알처럼 달려온 금실이의 입에서 숨넘어  
갈듯 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언니… 언니… 아버지원수님께서 오셨  
어. 저기… 빨리 가, 어서…》

금실이는 무작정 금옥이의 팔을 잡아끌었  
습니다. 금옥이의 목이 얼어붙은듯 굳어졌  
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뿐, 금옥이는 손에  
든 주머니를 한가슴에 안은채 얼어질듯 내  
달렸습니다.

《음, 네가 금옥이로구나. 관장동무에게  
참 멋진 딸들이 있구만.》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금옥이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자신의 곁에 세우신  
대원수님께서서는 금실이 아버지를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언니에게 빼앗긴 금실이는  
더 다가올념을 못하고 눈만 흘렸습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  
라보시며 다정히 물으시었습니다.

《금옥아, 네 손에 든것이 조약돌이 아  
니냐?》

《예?! 그렇습니다. 조약돌입니다.》

뜻밖의 물으심에 금옥이의 입이 항 벌어  
졌습니다. 금실이도 어떻게 아실가 하고 놀  
라와 언니의 가슴에 안겨있는 천주머니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둘레에 깔려고 가져온 조약돌이  
겠구나. 내 말이 맞지? 그런데 어쩐다… 여  
긴 벌써 금실이와 혜성이가 다 깔아놨으니  
말이다.》

대원수님의 칭찬의 말씀에 어깨가 으쓱해  
진 금실이는 언니에게 살짝 눈을 흘기었습  
니다.

《역시 보천보아이들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않소?》

대원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신채 투  
사아저씨들을 돌아보시며 물으시었습니다.

만족해하시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소녀들  
의 얼굴들마다엔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났  
습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소녀들의 머리를 하나  
하나 쓰다듬어주시며 말씀을 이으시었습  
니다.

《너희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있다.  
지금 온 나라에 타번지고있는 천리마대교  
조의 불길도 20여년전 이곳에서 타오른 그  
불길에 바탕을 두어야 더 세차게 타오를  
수 있는것이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보천  
보를 더 잘 꾸려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불길을 안겨주어야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일으킬수 있  
는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천보아이들은 별  
써 온 나라에 불을 지펴가고있으니 얼마나  
장하오.》

《야!》

아이들은 손뼉까지 마주치며 환성을 올리  
였습니다. 봄노래를 부르며 흐르던 가림천  
물결소리도 세차게 파도쳐흐르는듯싶었습  
니다. 푸른 아지 뻗어나간 황철나무도 환희로  
설레었습니다. 물결도 나무도 모두 감격에  
넘쳐 춤을 추는듯 했습니다.

금실이는 대원수님의 믿음에 찬 눈길을  
느끼자 다물었던 입귀를 벌리며 방긋 웃었  
습니다. 연한 홍조가 방그레 퍼져가는 그  
의 얼굴에 탐스러운 보조개가 푹 패었습  
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새물새물 행복의 웃음을  
담은 금실이와 혜성이의 얼굴을 다정히 쓸  
어주시며 나직이 이르시었습니다.

《너희들이 조약돌을 얻으러 가림천우목  
에까지 갔댔단 말이지.… 10리가 넘겠는데  
힘들었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 언니에 비  
하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  
닌 보천보에 피어나는 진달래꽃들은 다 항  
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녀이 깃들어있다고  
이웃군에 가서 진달래를 떠다 여기에 심었  
습니다.》

이번에도 혜성이가 먼저 한걸음 나섰습  
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언니를 보고 〈진달  
래언니〉, 〈조약돌언니〉라고 부릅니다.》

금실이와 혜성이가 번갈아가며 칭찬을 늘  
어놓자 금옥이의 동그스름한 얼굴은 단박  
짜리빛이 되었습니다.

《원수님, 사실은 여기 보천보에 누구보  
다먼저 평양제1중학교 답사대대장동무가 조  
약돌을 깔고 꽃모들을 심었습니다. 우리도

대장동무의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고 대장동무가 보내준 자료를 보고야 우리가 사는 보천보는 가는 곳마다 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이라는것을 가슴에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금옥이의 궁지에 넘쳐있는 말에 대원수님께서서는 연방 고개를 끄덕이시였습니다.

《응, 그래서 금옥이뿐아니라 너희들도 다 보천보의 〈진달래〉, 〈조약돌〉이 됐구나. 그 말이 옳다. 보천보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다 항일빨찌산대원들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지. … 이런 뜻깊은 고장을 더욱 사랑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락원으로 꾸림으로써 항일의 혁명전통을 더욱 더 빛내이는 임무가 바로 너희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소녀들의 어깨를 다정히 꺼안아주시며 만족하신듯 환하게 웃으시였습니다.

#### 4

《허허, 그러니 관장동무네 가족이 여기 다 모인셈이구만.》

대원수님의 크나큰 기대와 념원이 어린 말씀에 금실이 아버지는 더욱 송구스러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정말 관장동무네 가정은 훌륭하오. 모두가 혁명전통교양의 제일앞장에 선 훌륭한 사람들이요.》

금실이는 입속말로 대원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으로 너무도 큰 그 무엇이 치솟아오르는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한발 나서며 감격어린 목소리로 정중히 아뢰었습니다.

《수령님, 아직 우리 집안이 해놓은 일은 너무 작습니다. 앞으로 저뿐이 아니라 우리 딸들도 다 이 영광의 전적지에 세워 수령님의 그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결심에 대원수님께서서는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딸들도 다 전적지를 지켜가게 하겠다 말이지?》

《그렇습니다, 수령님!》

금실이도 참지 못하고 응석기가 다분한 목소리로 대원수님께 말씀올렸습니다.

《원수님, 우리 언닌 학교에서 공부룰 제일 잘합니다. 하지만 언닌 대학이 아니라 여기 전적지해설원이 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꼭 언니처럼 되겠습니다.》

대원수님의 안광에 대견함이 함뿍 어리시였습니다.

《용타, 그래야 하구말구. 그래서 우리 혁명의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전적지사람들이 맨 앞장에 서야 하구말구. 봄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처럼 말이다. 그래서 너희들뿐아니라 여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이 보천보를 언제나 가슴에 안고살게 해야 한다.》

대원수님의 절절하신 말씀에 혜성이라도 새삼스러운 눈길로 금실이와 금옥언니를 번갈아보았습니다. 대학보다 더 중요한 곳이라고 하던 금실이의 말이 그제야 리해되었고 이 시각 금옥언니의 희망이 자기의 가슴에도 그대로 옮겨지는것을 느꼈습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금실이 아버지를 향해 말씀을 계속하시였습니다.

《좁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앞으로 혁명전적지를 꾸리는 사업을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항일의 전통이 어떤 피어린 투쟁속에서 창조되고 마련되었는가를 실감있게 구체적으로 더 잘 알게 하자는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관장동무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수령님, 전적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체험자로서 보천보투투에 대해 이야기해줄 때면 정말 궁지가 커지고 사는 보람을 느끼군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전적지를 찾는 사람마다 항일투사동지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이야기를 더 알고싶어하는데 그들의 요구에 만족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금실이는 아버지가 늘 안타까와하던 이야기를 말씀올리고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평양제1중학교 답사행군대오의

뒤를 이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있는가. 로동자와 농민, 군대아저씨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한결같이 전적지에 사는 자기들은 뭐나 다 알고있는것처럼 여기고 많은것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금실이자신도 그 애들보다 더 크게 아는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에 대한 사랑, 전적지에서 사는 공지만 안고있을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다 헤아려보신듯 대원수님께서서는 자애롭게 웃으시며 옆에 서있는 투사들을 둘러보시었습니다.

《내가 오늘 동무들과 함께 오길 정말 잘한것 같소. 관장동무랑 이 애들의 물음에 대답을 줄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동무들이요.》

대원수님께서서는 항일혁명의 전구마다에 깃든 실재한 자료들은 체험자들이상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시면서 희생된 전우들의 뒀까지 합쳐 더 많은 회상실기들을 써내는것과 함께 전적지장사들과의 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이윽하여 대원수님께서서는 금옥이에게 정찬 시선을 보내시었습니다.

《금옥아, 여기 보천보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너의 희망을 난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잘못 생각하고있다.》

《네?》

《전적지의 진짜 주인이 되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알자면 대학에 가야 한다... 관장동무, 앞으로는 대학의 역사학부들에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학과실력이 높은 학생들을 골라 혁명전적지 강사들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금옥이도 웅당 대학에 보내야 되지 않소? 어떻습니까?》

《수령님!...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더 잘 알았...》

금옥이 아버지는 감격과 흥분에 목소리를 떨며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투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대원수님의 뜻을 알게 된 금옥이도 마디마디 힘주어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님, 원수님말씀대로 대학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훌륭한 전적지강사가 되겠습니다.》

《금실이 생각엔 어떠냐? 전적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자라는 너희들도 같은 생각일테지?》

《아버지원수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이나 한듯 힘차게 대답하는 두 애를 대원수님께서서는 대견히 굽어보시었습니다.

《애들아,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너희들이 있어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고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것이다.

난 오늘 정말 기쁘구나. 봄날의 진달래와도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있는 너희들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쁘다.》

《아버지원수님!》

애들은 대원수님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 풍겨오는 진달래의 향기가 행복한 그 애들의 가슴에 한껏 흘러들었습니다.

(원수님, 꼭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혁명전적지 강사가 되겠습니다.)

금실이의 굳은 결심을 축복하는양 보천보의 산천초목도 끝없이 설레었습니다.

《자, 그럼 앞날의 혁명전적지 강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야지?!》

금실이와 혜성은 너무 좋아 깡충깡충 뛰며 대원수님의 량옆에 매달렸습니다.

대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을 한품에 껴안으시고 그들의 앞날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서 밝은 해님이 축복의 빛을 아낌없이 뿌려줍니다.

×

사랑의 그날을 안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항일유격대복장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금실이와 혜성이가 답사대원들을 이끌고 가림천기슭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고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희망이 꽃피난 잊지 못할 봄날이 력력히 어려있었습니다.